

미국/일리노이대학교 화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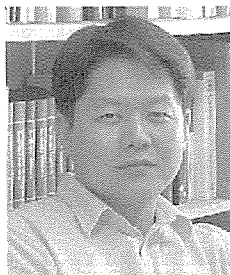
노벨상 수상자 10명 배출한 ‘名門’

미국 중서부 지방의 시카고(Chicago)시에서 남쪽으로 약 2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어바나(Urbana)와 샴페인(Champaign)이라는 작은 두 도시가 있고, 인접한 이 두 도시에 약 2백개의 대학 건물로 구성된 일리노이대학교(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가 자리잡고 있다.

1991년 필자가 유학생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은근히 세련된 도시에 살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황량한 농촌 도시로 유학가는 것에 솔직히 이쉬워했었다. 찾아간 그 곳은 한국에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시골이었으며, 머리 속에서 그리던 미국 대학의 모습과는 차이점이 많았다. 학교를 둘러싸고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 밭들과 축사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에 그저 압담함 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 환경과는 대조적으로 이 대학의 수준 높은 첨단 연구시설과 연구여건은 필자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정도이었으며 이 대학 대부분의 이공계 학과들이 세계적 수준의 시설과 평판을 자랑하며 명성을 떨치고 있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첨단연구시설에 ... 교수 50여명 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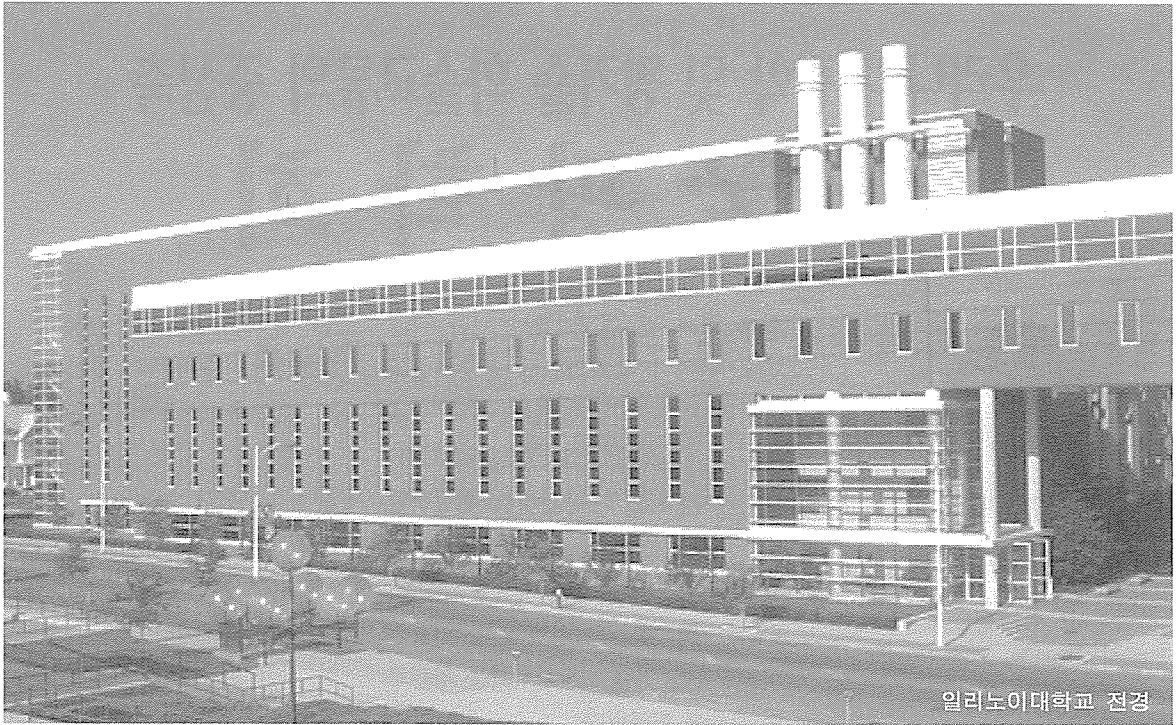
일리노이대학교 화학과는 뛰어난 연구활동으로 오래 전부터 명성을 떨쳐온 결과 최근 몇십년 동안 미국 내 화학과 평가에서 5~6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 대학 화학과의 교수 혹은 졸업생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학자는 10명이며, 미국 화학회 회장직을 역임한 사람은 23명에 이른다. 이와 같이 미국 화학계의 중심에 서서 현대 화학의



朴 勇 善
(건국대 화학과 교수)

발전을 이끌어온 일리노이의 화학자 중에서 특히, 백금 촉매를 이용한 수소화 반응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유기화학 분야의 바이블(bible)이라 할 수 있는 「유기합성(Organic Synthesis)」 책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로저 아담스(Roger Adams)와 현대 화학 연구에 필수적인 정보서인 「화학초록(Chemical Abstracts)」을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윌리엄 노이즈(William Noyes)의 업적은 매우 뛰어나다. 두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화학과가 사용하는 4개의 건물 중 2개의 건물에 이들의 이름을 붙여 각각 노이즈 실험관(Noyes Lab.)과 로저 아담스 실험관(Roger Adams Lab.)으로 부르고 있다. 올해 9월에는 노이즈 실험관의 개관 1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졸업생들 중심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이즈 실험관 2층에는 모든 화학 관련 학문을 위한 화학도서관이 자리잡고 있으며,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며 연구활동을 돕고 있다. 이것은 관리의 효율성보다는 연구의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여 각 학문별로 도서관을 분리 운영하는 대학의 합리적인 전통에 의한 것이다. 또한 이 건물의 지하에 자리잡고 있는 질량 분석 실험실과 X-선 회절 분석실은 세계적인 첨단 시설을 자랑하고 있으며, 교내의 연구보조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의 분석의뢰로 항상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현재 화학과에는 50여명의 저명한 교수들이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등의 각 전공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다른 전공 분야 간의 유기적인 협동 연구 뿐만 아니라



일리노이대학교 전경

미국 시카고에서 남쪽으로 2백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일리노이대학교 화학과는 노벨상 수상자 10명을 탄생시킨 명문대로 박사 3천5백여명과 석·학사 9천여명을 배출했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대학 화학과 졸업생만도 40명이 넘는다.

오래 전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온 생명공학, 재료공학과의 협동 연구를 위하여 다른 과 건물에 별도의 실험실을 갖고 있는 교수가 많이 있다.

교수들은 프로의식, 대학원생들은 학문열정

1903년 첫 박사를 배출한 이래로 지금까지 3천5백여명의 박사과 9천여명의 석사와 학사를 배출한 일리노이대학교 화학과는 규모 면에서도 미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훌륭한 전통과 우수한 연구환경, 그리고 막강한 인적 자원이 일리노이대학교 화학과를 세계 정상에 올려 놓았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졸업생들이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고, 유난히 강한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은 교수들의 프로 의식과 대학원생들의 학문에 대한 진지한 열정에서 비롯된 유대감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일리노이대학에서 얼마 간의 시간을 보낸 후 평

화로운 시골 도시에 정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 곳을 떠난 지 5년의 세월이 지나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잔잔한 그리움이 생길 정도이다. 특히, 아파트 거실에 앉아 볼 수 있었던 지평선과 그림같은 농촌 풍경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다. 항상 긴장감이 감돌고 자칫 고달프기만 할 수 있는 유학 생활에서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복잡하지 않은 평화로운 농촌 분위기 덕분이었을 것이다. 학교의 높은 연구 수준과 더불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이 곳의 물가는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유학생들에게 이 대학을 선호하게 하는 매력이기도 하다. 국내 학계와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리노이대학교 화학과 졸업생은 40여명 정도로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다. 모든 분들이 일리노이에서 받은 최상의 교육에 만족하며 그 시절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계실 것으로 필자는 믿는다. ④